

성도의 교제 |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장하는 그리스도인

환영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교제를 나누시고, 신앙 생활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알림

- 1. 오늘 실만한물가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 2. 2025 년에 온 성도님들이 함께 잃은 양 찾기 운동에 참여합니다.  
실천사항 1: 잃은 양을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실천사항 2: 잃은 양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소개합니다.
- 3. 사순절(3/5-4/19)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의 기간 동안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 4. Daylight Saving Time: 다음 주일(3/9)에 2:00am=>3:00am 으로 변경됩니다.
- 5. 온라인 새벽 예배가 진행 중입니다. 매주 화, 수, 금 오전 6 시 YouTube (신명기)
- 6. 토요 전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 7. 마태복음 5 장 14 절 (2025 년 3 월 성경 암송 구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 8. 실만한 물가 교회 헌금 안내입니다.  
Cheque Pay to: The Refreshing Church  
E-Transfer: [rwgchurch@outlook.com](mailto:rwgchurch@outlook.com)

실만한물가교회 연락처

E-mail: [rwgchurch@outlook.com](mailto:rwgchurch@outlook.com)

Homepage: [rwgchurch.ca](http://rwgchurch.ca)

Tel.: 647-989-2546

Address: 2630 Inlake Court, Mississauga, ON L5N 2A7

실만한 물가 교회 QR Code Scan

홈페이지



YouTube 채널



목요성경공부



카카오채널



대한예수교장로회  
실만한물가교회  
The Refreshing Watered Garden Church

주일 예배	오후 1:30	인도: 김윤규 목사
목도 Choral Prelude		다함께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인도자
기원 Invocation		인도자
*찬송 Hymn	22 장 (통 26)	다함께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다함께
*교독문 Responsive Reading	83. 빌립보서 4 장	다함께
찬양과 경배 Praise and Worship	찬 300 / 292 장	다함께
교회 소식 Announcements		인도자
봉헌 및 기도 Offering & Prayer	213 장 (통 348)	다함께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	시편(Psalm) 74:2 (p. 856)	인도자
설 교 Sermon		김윤규 목사

주의 공동체를 기억하소서

Please remember your congregation

*찬 송 Hymn	208 장 (통 246)	다함께
*축 도 Benediction		김윤규 목사

\*는 일어섭니다

초대 교회의 신앙으로 세워가는 교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롬 5:1)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 || 말씀 노트 || 주의 공동체를 기억하소서

(시 73:17)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시 73:18)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시 73:19)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시 74:1)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시 74:9) 우리의 표적은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더 이상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래인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시 74:12)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시 74:18)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시 74:20) 그 언약을 눈여겨 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시 74:21) 학대 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 || 목회와 삶 || 기억하라

‘기억하다’(to remember)라는 히브리어 동사 ‘자칼’(zakar)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을 기억하면서 소망을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시편 77 편의 말씀을 보면, 시인 아삽은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갈등으로 시작합니다. 아삽은 자신의 영혼은 위로를 받지 못해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신음에 빠지고 위로를 받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시 77:3). 아삽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와 약속에 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집니다(시 77:7-9).

이러한 질문들을 통하여 아삽이 고백하는 것은 자신의 믿음의 연약함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을 믿는 자신의 믿음이 약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아삽은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에게 행하신 출애굽의 사건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되새겨 봅니다. 이러한 기억을 통하여 아삽은 자신이 밤새도록 눈을 감지 못하고 괴로워했던 절망의 시간 속에서 소망을 바라봅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신 사건을 기억합니다. 아삽은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을 때 바다가 하나님을 뵈고 무서워 떨어졌다고 고백합니다(시 77:16). 하나님께서 바다에 길을 내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양 떼 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을 통하여 인도해 내셨다고 고백합니다(시 77:20).

아삽의 기억은 단순히 과거를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들과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과정을 되새기며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을 얻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순종을 다짐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걷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삶을 기억하는 것은 육체의 유한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에게 영원의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 77:11)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